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거두었노라 대한의 혼이 소리지 달렸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숲 원수를 밀어거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원수의 하늘까지 나는 새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이 글은 모윤숙(毛允淑 1910-1990) 선생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의 중간 중간 몇 줄을 따낸 대목이다. 오늘날 70대 이상의 6·25체험 세대들은 이 시를 학교에서 배우거나 방송에서 듣거나, 책에서 보거나 하여 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이 시처럼 한 병사

의 죽음을 통해서 조국 수호의 뜨거운 피가 웅숭웃치게 하는 애국심, 꽃잎처럼 사라져간 한 젊은 생명의 애절함 속에서 눈물을 참을 수없게 하는 말 또는 노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는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언제나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우리에게 6·25 북한의 남침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60년, 어언 두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이 총부리를 맞댄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 김일성 집단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침략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까지 3년 1개월동안 남북간에 벌어진 군사적 싸움이다. 공산권에서는 북한, 소련, 중공, 자유진영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이 참전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한국군 전사자 14만 7천명을 포함하여 UN군이 18만명 이상 전사했고,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90만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8만 5천명에 달하는 남한의 인사들을 납치해 갔고,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인구의 4부의 1에 해당하는 3백만명의 민간인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 왔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모든 참전국들과 희생자를 전부 합치면 2백만명이 넘는다는 실로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참혹한 살상의 비극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와 학생들은 이런 6·25를 잘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해도 잘못 알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교육의 부재다. 다음 둘째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6·25에 관한 서술은 3-6페이지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수업도 넉넉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재도 수업도 모두 부실한 것이다.

그나마 내용이나 교사들의 가르침 역시 거의 모두가 6·25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에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남침을 '남한의 북침'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6.25에 대한 수정주의란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남한을 침략 한 것"이란 학계

의 정설(정통주의)을 부인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1)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2)38선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런 수정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인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1981) 시카고대 부루스 커밍스다. 80년대 이후 한국의 일부 지식인과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이런 수정주의를 받아들여 6.25는 마치 남한의 북침인 것처럼 왜곡하여 일반이나 학생들에게 선동하고 교재에까지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6·25에 대한 현주소다. 1991년 6·25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전쟁이란 구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부루스 커밍스는 여러차례,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도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며, 나는 수정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수정주의적 견해를 다시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빼놓아진 수정주의자들 다 자기들의 견해를 수정하여 올바른 6·25의 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6·25에 대한 바른 교육과 바른 인식만이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한다.

발언대

잇달은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계를 공분하게 했던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이 친불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벌써 4건의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교회의 공격적 선교 논란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SNS에 나타난 대중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불자들이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강대 교수

인천공항청사 특정종교시설물 설치부터 시작해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교교회의 활동, 오세재 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보병 50사단 식사 기도문의 특정종교 지칭 등 최근 공직자종교편향 사례(본지 946호 게재)가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분노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사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종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동료 부하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부서는 국민에게 정책적 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째로는 불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노출 시켜야 한다.

공직자들은 동선 자체가 권력의 행사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종교는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종교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종교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국민들은 선거 등을 통해 이런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로 끝날 것인가 이후의 유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가는 불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불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조치 혹은 결과를 자료화해 종교 편향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연기의 범칙을 얹혀 있는 잊지 말자.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미래 '창조' 과학부라는게 나왔을때 사람들이 창조과학 냄새난다고 씁쓸해만 해도 농담에 가까웠는데 정말 그 부서에서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선교운동을 하자는 등... 질나쁜 농담이 현실이 되는 시대.

<트위터 milln @lain2pm>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한 기독교회의 공격적 선교활동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세로 돌아갈지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치유는 사법정의부터 실현하는 것인데 선교회라니?

<트위터 바닷속 @2badasok>

미래창조과학부의 선교단이 모든 정부기관에 개신교전도단설치를 기획 이명박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편향이 없을줄알았는데 바보다 신천지등 요상한 괴물들이 설친다. 창조과학이라는 괴물도 개신교 광신단체가 기획한 것이라면 박동성부 무너진다.

<트위터 윤소암 @kunkang108>

대놓고 미래부의 '복음화'가 목적이

라는데 종교에 중립적이어야할 정부기관을 개신교가 손아귀에 넣겠다는 건가. 개신교를 국교로 하라고 덤벼들기 같다.

<트위터 에스텔 @toestel77>

미래창조과학부. 도대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적으로 과학을 부인하는 '창조과학'과 관련 되는데. 거기다가 창조과학과 교수를 부서장관으로 둔다는 소리야? 이 나라 종교에는 개신교만 있나?

<트위터 김영민 @ncb00>

미래창조과학부 기독교회의 공격적 선교활동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교회 측은 설립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살림 @dorasanhjunsu>

교과서에 창조론을 끼워 넣으려는 개신교의 꿈.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군요. 4년짜리 신이라...

<문 토도로 @Jmy>

社說

반성할 점이 많은 194차 중앙총회

장단점이 있지만, 조계종의 행정 체계는 정부 시스템과 흡사하다. 이유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총무원을 비롯한 삼원은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역할은 중앙총회가 담당한다.

세간의 국회도 그렇지만 조계종의 중앙총회도 지탄을 받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6월 25~26일 열린 194차 중앙총회가 딱 그런 사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팔공?쌍계?금정총림 방상 추대와 정소년?단기출가 특별법 제정 등의 일부 성과를 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퇴장과 종헌 부결, 정점 빠진 총림법 제개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을 넘기가 어렵게 됐다.

25일 다뤄진 종헌 개정안에서 호계위원회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해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자는 종헌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이를 항의해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들이 전원 퇴장해 총회 불참을 결의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종헌 개정 부결과 비구니 스님들의 전원 불참으로 일부승가 회의가 된 이번 총회는 회의 운영에도 오점을 남겼다. 의사정족수인 41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 진행이 번번이 중단됐으며 급기야는 총회 사무처 직원과 일부 의원 스님들이 의견을 위해 의원 스님을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비구 스님의 폄하 발언에 비구니 스님들의 퇴장으로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조계종 중앙총회가 종도를 대표하는 입법기구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졌다. 총회가 기독교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임시회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입법기구를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붓다로 살며 인류에게 희망 주자

불자들의 가장 큰 발전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불성을 마음수행을 통해 계속 증득하면서 부처님 같이 살면 된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붓다로 살자는 움직임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인 사부대중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가 지금 여기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결사의 생활화 대중화를 선언하는 출범식을 6월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었다. '붓다로 살자'는 사부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승가와 재가의 차별이 없고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이 오직 붓다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전국적인 모임이다. 슬로건이자 단체명인 '붓다로 살자'도 의미심장하다. 과거 신행의 구호였던 '부처가 되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부처가 되자'는 나는 중생이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고 수행해야 하는 미래형의 외침이었다면, '붓다로 살자'는 내가 이미 본래 부처임을 알고 바로 지금 여

기서 당장 부처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현재형의 의미가 담겨있다. 또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이므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평등 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도법스님은 지금 바로 여기서 붓다로 살아가 21세기 한국불교와 인류문명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전북 불교대학장도 "부처로 살기 위해 깨달아야 한다는 갈망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부처로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은 △매일 1백원 이상 보시 △남의 말 경청하기 △소박한 밥상 차리기 △매주 하루 자가용 없이 다니기 △매주 동네 한바퀴를 돌며 공동체 살피기 등 생활속에서 붓다로 살기운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여기서 제시한 실천덕목이외에도 부처님이 사신 그 발자취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닦도록 노력해 간다면 우리 모두 성불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총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비책(秘訣)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인간의 김홍회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인간의 김홍회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조상님의 산소자리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조상님 산소자리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문론의 명 책자 신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